

오륙도 칼럼



동길산

약속장소는 문화의 거리 입구. 거기서 어디냐고 묻자 경성대 사거리에서 물어보면 다 안다는 대답이다. 경성대·부경대 지하철역에서 내리니 패밀리마트가 눈에 들어온다. “문화의 거리요?” 직원이 고개를 가우뚱거린다. 다른 직원은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며 말을 흐린다.

모르는 사람도 있으려니, 약속장

소를 잘못 들었는가 싶기도 하고 문화의 거리가 외딴 곳에 있어 잘 모르는가 싶기도 하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면 5번 출구로 일단 나간다. 경성대 사거리다. 약속장소가 낯선 곳이라서 일찍 나선 덕분에 시간은 아직 넉넉하다. 때가 되면 전화가 오겠지. 느긋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사거리에서 용호동 쪽에 서점이 보인다. 시간 때우기에 서점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 매장이 꽤 넓다. 문학과 문학대로, 교양은 교양대로,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책정리가 깔끔하다. 위치가 위치다 보니 손님들은 열에 열, 학생이지 싶다. 책갈피를 들추는 표정들이 진지하다. 요즘 학생은 책을 잘 안 읽는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을 이 서점에서 확인한다.

용호로 8번길. 빵집과 편의점 사이 셋길이다. 학원도 보이고 다른 업종도 보이지만 식당가인 듯 음식집이 많다. 저녁시간이라 빈자리보다 찬 자리가 많다. 간판을 가웃거리며 슬렁슬렁 걷는다. 가게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느긋한 걸음을 더 느긋하게 한다. 가방을 메거나 책을 낀 젊은이들이 제잘 대면서 나를 앞질러 가거나 내 앞에서 온다. 하나같이 싱그럽다. 생머리고 생얼이다.

젊음. 누구라도 그런 시절이 있을 것이고 있었을 것이다. 어서 다가오기를,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시절, 젊음, 얼굴이 어둡고 몸매가 어둡고를 떠나서 젊음은 그 자체만으로 예쁘다. 그 자체만으로 힘이

다. 기성세대보다 좀 남부하면 어떨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좀 불안하면 어떨까. 젊음은 천만금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내 몸이 천만금보다 비싸고 억만금보다 비싸다는 자부심만으로 젊음은 그 얼마나 넉넉한가. 흐뭇한가.

학생 넷명이 내 앞에서 온다. 다들 표정이 선하고 밝다. 아들이 있으면 머느리를 삼고 싶고 딸이 있으면 사위를 삼고 싶은 표정들이다.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사람. 머느리를 삼는 대신에 사위를 삼는 대신에 스쳐 지나면서 숨을 흡수를 들이킨다. 그들이 삼는 것은 젊은 기운을 들이키고 삼는 것이다. 과육일지언정 나도 젊어지고 싶은 것이다.

“요즘 학생들 안목이 되게 높아

요. 구입은 못해도 감상은 즐기지요.” 가게 입구에 전시회 간판이 보인다. 가게 이름이 특이하다. 테이블 모던 서비스. 무슨 가게고 무슨 전시회가 싶어 들어가 본다. 실내 인테리어가 정갈하다.

벽면엔 은은한 그림들. 차도 팔면서 전시회도 여는 복합 카페다. 그림과 사진, 디자인제품 등 학생 동아리나 교수 전시회를 주로 여는데 무료대관이고 분위기가 좋아 내년 말까지 예약돼 있다는 김한수 사장 귀뜸이다.

이 일대는 복합 갤러리가 곳곳에 있다. 문화적 안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생이 주 고객인 까닭이다. 인근엔 대학이 몰려 있다. 경성대와 부경대가 붙어있고 약간 떨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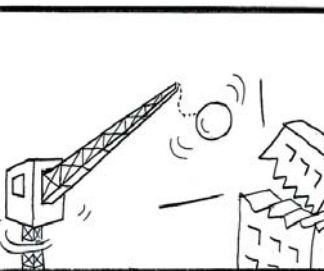
예술대가 있다. 작년에 들어선 거리공연장에선 토요일마다 야외공연이 열린다. 거리공연장은 남구청과 부경대가 부경대 담벼락을 허물고 대학로 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생긴 소통의 공간. 이 거리를 통해, 이 공연장을 통해 지역주민과 대학생이 소통하고 있고 지역과 대학이 하나가 되고 있다.

약속시간이 됐는데도 전화가 오지 않는다. 담벼락을 허문 부경대 길을 걷는다. 벤치가 있어 쉬어가기도 좋다. 여기가 문화의 거리인가?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다 싶어 벤치에 앉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문화골목 이란다. 문화골목은 또 어디람. 소극장이 있고 갤러리가 있는 곳이란 다. 전화로 일러준 대로 갈림길을 이리 꺾고 저리 꺾으면서 찾아 나선다. 젊은이들을 지나칠 때마다 숨을 깊숙이 들이켜 한 십 년은 젊어진 듯하다.

시인·dgs1116@hanmail.net

신선대 채규중



선웅의 1000자 지혜 ⑦

옛사람의 말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어른들의 말이라면 선인관부터 시대에 뒤떨어졌다, 허튼소리다, 비과학적이다, 잔소리다 등, 자기 나름대로 먼저 부정적인 결론부터 지어놓고 통 뚫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말치고 하나 그런 대가 없다. 그것은 오랜 세월 수많은 경험에서 얻은 인생의 근본원리이며 진리이기 때문이다.

옛날 관중(管中)이란 젊은이와 추봉(鄒鳳)이란 젊은이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 그들이 전쟁터로 떠날 때만 하더라도 새순이 돋는 봄이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는 북풍이 휘몰아치는 한 겨울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어떻게 하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눈이 멈출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고 정말 난감했다.

관중은 갑자기 옛사람들의 말이 생각났다.

“늙은 말은 길을 잘 안다고 하

는데 말을 풀어놓아 볼까?”

“잘못 하면 말까지 잃어버리고 굶다시 얼어 죽게 될 것이 아닌가?”

어쩌면 추봉의 말마따나 정말 위험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럴다고 하여 다른 방법도 없는 터라 운을 하늘에 맡기고 말 뒤를 따라갔다. 과연 얼마안가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나왔다. 그런데 다시 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져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추봉이 말했다.

“개미는 겨울에는 산 남쪽에 살고, 여름에는 산 북쪽에 산다는데 개미집을 지을 때 쌓아올린 흙을 보면 그 밑 2~3미터 되는 곳에 물이 있다고 했어.”

추봉이 말한 대로 흙을 파보니 과연 물이 솟아나왔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관중이나 추봉처럼 영리한 젊은이도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런데 영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궤변한 소리를 믿어? 하면서 무턱대고 옛사람들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깊이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번역문학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노르딕 워킹교실 열자

음에 글을 올린다.

김지영(용호1동)

건강체협실 인력 보강을

우연히 노르딕 워킹이 일반 경기 운동보다 운동량이 많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무리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게됐다.

부산에서는 서구정 보건소에서 꽤 오래전부터 강습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 또한 좋다고 한다.

하지만 남구에서 배워 보고 싶고 아바도 딱히 강습해주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남구 보건소에서도 강습을 신설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건축 희망 단체 접수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선별과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갖자는 의견을 주신 용호1동 김영임 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남구에서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활용품의 자원화와 분리배출의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견학 장소로 전문화된 재활용 관련 홍보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홍보 교

육관(김해 소재) 및 부산광역시 환경자원공원 홍보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인과 단체 견학 신청도 가능하며 남구 청소행정과에서는 견학 희망 단체를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55-320-0302(부산환경공단 재활용홍보교육관), 051-309-7115(부산광역시 환경자원공원사업소)

경성대·부경대역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확충하자고

임상자 선정 원칙 지켜야

남구에서 노인복지관을 설립해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다.

운영자인 동명대학교 측도 노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또한 고맙다.

그런데 지난 2월 노인의 날에 남구노인노래자랑 순서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문현동에 사는 모씨가 사회자에게 57살이라고 밝혔는데 인기상을 수

건의하신 대연3동 황외숙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도시철도 역사이동 시설개량(편의시설)설치공사에 협조해 주시는 귀구와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내달 경성대·부경대역 엘리베이터 공사를 실시해 내달 내부엘리베이터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3번 출구 21세기 센츄리빌딩 앞에 설치되는 외부엘리베이터는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강동훈>

■ 나의 생각

소음저감대책으로 쾌적한 환경을



이덕식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남해안 관광 및 산업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미 개통된 남항대교와 3년 후에 개통되는 북항대교가 완공되면 광안대교를 포함하여 부산시항과 북항 주변을 순환하는 관광·산업도로가 큰 변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시와 남구청 등 지자체들은 각종의 대교 주변을 통과하는 교통수요량을 예측,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문화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대처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이어가는 영도구 내 도로를 지상화로 하는 것과 지하화로 하는 것을 놓고 영도구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신문에 호소문 게재와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남구도 북항대교와 광안대교를 이어가는 지역이고 갈만 부두와 신선대부두 등이 위치하는 지리적인 문제로 민원 발생의 요인이 농후하다.

신선로를 지하화 하기는 어렵지만 늘어나는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특히 소음으로 인한 교육환경저하, 쾌적한 주거문화에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처해야만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용호1동LG메트로시티
하자대책위원장

산따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0. 11.>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산정산악회	14(일)	지리산 둘레길	010-9301-9780
	유연산악회	21(일)	함안 서북산	016-553-2075
	약전산악회	17(수)	상주 칠봉산	010-4655-4370
	연포산악회	14(일)	밀양 얼음골 단풍산행(사파따기 체험)	010-6633-8659
용호동	청암산악회	10(수)	경북 김천 황악산	019-545-3192
	명산산악회	7(일)	합천 만물산	011-870-2660
	환경산악회	7(일)	담양 강전산	011-575-3448
	용호산악회	28(일)	충북 보은 구별산	011-848-0911
	금강산악회	7(일)	지리산 피아골	011-865-9051
용당동	제일산악회	7(일)	담양 추월산	011-594-4192
	용신산악회	14(일)	충북 단양 제비봉	011-488-3307
	문화산악회	28(일)	지리산 둘레길	016-564-8882
감만동	용마산악회	14(일)	담양 추월산	018-565-0004
	글로벌산악회	21(일)	담양 추월산	010-8287-1192
우암동	녹색산악회	28(일)	전남 영암 월출산	011-9315-6431
	우암산악회	7(일)	강원 오대산	010-6666-3577
	한솔산악회	14(일)	영암 월출산	011-9524-8224
	우남산악회	21(일)	함양 덕유산	010-7520-6666
	우암산악회	28(일)	충남 금산 대둔산	010-3889-2746
문현동	문현2산악회	14(일)	지리산 피아골	016-570-0539
	문현산우회	14(일)	서울 도봉산	010-6573-9090
	문사산악회	14(일)	영동 민주지산	019-558-2828

* 산행 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알림

무료 치과진료 실시합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좋은강안병원'의 협조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여러분에게 치과진료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구강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진료일시: 10.2~12.4(3개월간) 매달 첫째주 토요일 14:30~16:00
- 진료장소: 복지관 의무실
- 대상자
 - ▷지체장애가 심하거나 지적장애로 인해 구강관리가 힘든 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기타 치과 진료가 꼭 필요한 분
- 진료의사: 장원석 치과전문 의(좋은강안병원 과장)
- 신청서류: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전화·방문접수
- 문의처: 남구장애인복지관 의무실 ☎626-6990~1



책민식의 진실4살 이야기

계단 입구에서 아가씨가 사주보는 장면이다. 열심히 설명해주는 노인인 여성이 표정을 심각하다. 비연출 사진이기 때문에 진실하며 공감을 느끼게 한다. 나는 이러한 순간을 주제에 일념으로 매진했다. 인간의 삶을 숨김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리얼리즘 사진이다. 즉 다큐멘터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진작가·대연1동